

메주고리에



• 발행인 : 김 한 기 시몬 신부

• 편집인 : 남 흥 익 그레고리오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모든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고 너희들 마음의 변화를 갈망하는 이 봄날을 맞이하여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의 마음을 열고 기도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 모두를 내 아들 예수께 인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분은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께로 향한 진지한 사랑의 은총과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여 모든 것을 보시고 베푸시는 하느님께로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 2002년 4월 25일 -

천주의 성모



박명근 클레멘스 신부
(서울대교구)

제가 가톨릭 사제로서 신앙의 언어를 시작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입에 올린 말 중에 하나가 천주의 성모여 라는 성모님께 대한 호칭입니다. 천주의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모님께 대한 신뢰가 담긴 호칭으로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친숙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함께 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할 친근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하느님의 어머니(Mater Del. Theotokos.)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까지 교회에는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칭호가 쓰여지기 시작한 이래 네스토리우스 이단과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갖고 있는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의 모성, 동정성, 원죄 없이 잉태되심 같은 중요한 믿을 교리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깊은 교우들은 더욱 더 그들의 뒤통까지 열심히, 열렬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성모님께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셨을 때 그 곳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는 그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하느님께 찬양 드린 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성

모님께 하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는 듯 합니다.

“당신의 가슴은 창에 찔린 듯 아플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대한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는 에페소 공의회에서 공표 되지만 그 이전에도 사용하던 칭호였습니다. 성모님의 칭호 문제로 에페소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모 마리아께 대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 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호칭문제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428년 콘스탄티노플 주교좌 성당에서 예수성탄대 축일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이며, 당시 이 도시는 동로마의 수도였습니다. 이 대미사에서 당대의 유명한 강론가인 플로클로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 (Mater Dei.)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강론을 하였습니다. 이 미사에 참석하였던 안티오키아 학파 출신의 네스토리오 주교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습니다. 플로클로는 바로 그곳 주교인 네스토리오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호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오 주교는 이 호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모님

께 대한 호칭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친(Christotokos)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에 열렬한 지지자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치릴로가 프로클로를 적극 지원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느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동방의 안티오키아 학파에서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이해하였고 네스토리우스는 안티오키아 학파출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느님이라는 교리는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당시 교부들은 속성의 교환(communicatio idiomatum)이란 원칙을 세우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persona)에 아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예수의 인성이 주어일 때 사용되는 술어들은 예수의 신성이 주어일 때도 같은 술어들이 사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게 결합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모친이 되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스토리오스는 이 원칙을 거부하여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여 마리아는 예수의 인성만을 낳은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치릴로는 '육을 따라서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바로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신성화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느님-사람이라는' 반박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자간의 논쟁의 해결의 기미가 없게 되자, 치릴로는 교황 헬레스티노 1세(422-432)에게 공의회를 요구하였고 에페소 공의회를 통해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논쟁의 완성은 성모님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주저하던 안티오키아 지역의 주교인 요한이 동방주교의 이름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천주의 모친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 논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대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에페소 공의회에서 최초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사도들로부터 전승된 성모님께 대한 특별



‘천주의 성모여, 당신의 보호하심에
우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요.’

-3세기, 교우들의 기도중에서-

한 공경은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에페소 공의회 이전까지 천주의 모친이란 칭호는 많은 교부들의 강론과 글에 마리아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벨리토, 오리게네스,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델, 안타나시오 바실리오 등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성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바치는 “천주의 성모여”로 시작하는 기도는 그 기원이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래가 깊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주의 성모여, 당신의 보호하심에 우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요.’

그 이후에도 천주의 성모라는 칭호는 칼체돈 공의회(451년)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의회는 이 사실을 재확인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이런 글을 쓰게 된 첫째 이유는, 일부 교회의 사제들 가운데 성모님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공적으로 설파하여 놀랐다는 이들을 생각해서 쓴 것이고, 둘째 이유는 성모님께 대한 특별하고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공경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고 교회의 가르침에 신뢰를 가지

고 더욱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이러한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이 소식지를 읽는 여러분은 성모님을 사랑하기에 저와 한 마음이 되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성모님을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름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고 외치는 선포인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세상의 위기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중재하시며 돌보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각인 시켜주시고자 매달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며 또한 얼마나 많은 온 세계의

모든 성모님의 자녀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믿음으로 뜨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즈음 많은 이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의 발현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당



신의 한없이신 모성을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모성은 신앙의 위기와 평화의 위기에 있는 이 시대가 돌아가야 할 어머니의 품입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품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더욱 더 충실한 하느님의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마음을 모아 이 세상에 하느님의 구원이 실현되고 하느님의 평화가 드러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천주의 성모님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물질위주의 삶에서,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하시며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어 주기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천주의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회개하고 단식하며 묵주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며 우리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를 기쁘게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분께서 천주의 모친이심을 증거하는 평화의 사도

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많은 자녀들에게 현존하시는 어머니의 깊고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과 부유한 이들이 천주의 모친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동정성까지 거론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들의 교만과 죄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드리셨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는 지금 이 시대에 더욱 더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모두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성모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며 성모님의 겸손과 사랑의 모성을 모든 이들에게 드러내는 표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모님 사랑합니다.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M**

"성모님의 특전을 말하는 것도 좋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모님이 가지시는 특전은 원죄에 물들음이 없으신 것과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녀 소화 데레사-



우리들의 공동체 가정

남 미카엘라

우리들이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며 좀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들에게는 내 가족이 살고있는 가정이 있고 본당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정)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교구라는 가정이 있으며 교황님에게는 가톨릭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과정을 통해서 가톨릭이라는 공동체(가정)가 무엇이며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자유 의지로 신앙의 길을 선택 한 것이며 그 결심의 표시로 기쁜 마음으로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노라고 예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러한 약속과 책임을 기본으로 하느님 중심의 가톨릭이라는 가정이 형성 된 것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의 숫자가 적든 많은 가정을 잘 유지해 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끈임 없는 희생과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 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보람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곳이기에 우리는 가정을 그리워하며 보금자리 또는 안식처라고 부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들과 후손들이 미래를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것이기에 가족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가정 파탄자, 무책임한 사람, 또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가정에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어려움을 극복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계기로 가족간에 더욱 더 두터운 신뢰를 갖게 되고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려웠던 지난 시간을 생각하고 감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간의 이런 아름다운 체험은 돈이나 권력 또는 힘이나 지식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어려움을 함께 겪은 가족만이 공유 할 수 있는 기쁨이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본당도 하나의 가정이기에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본당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본당은 하느님과 성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당 주임사제의 영적지도를 받으며 천상의 가정을 소망하는 지향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본당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당신과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혼자서는 살아 갈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는 자신을 봉헌한 사제에게 영신적 아버지의 역할을 맡기신 후 본당사제를 중심으로 우리 이웃(가족)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 해주신 공동체가 본당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가정)와 교황님과 사제들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으며 너무나 많은 위협과 시련 속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세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존재 자체가 도전 받고 있는 문제들로 시작하여 작게는 우리들의 본당인 교회를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닌 사람들과의 교제장소로 생각하여 마치 차 한잔 마시러 가는 듯이 또는 업무를 보러 가듯이 하는 위험한 풍토가 신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마치 악세사리 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의 몸인 성체마저도 아무런 의미조차 없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제들에게는 사제로서의 사명의식에 회의를 갖게 하여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의미를 불투명하게 하여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고자 하는 열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성모님께서서는 근 20여 년 동안의 발현을 통하여 죄의 분별조차 흐려진 이 세상의 삶에서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내의 일부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 때문에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극심한 이기주의로 자기중심적인 힘이 주축이 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며 이웃의 부족함을 지

적함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추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제는 우리들의 영신적 아버지로 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느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한계성과 약함을 지닌 인간이기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기도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제들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토록 외롭고 힘든 사제의 길을 선택하여 가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길을 가야합니까?
성소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도였습니까?

사제의 길이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외롭게 비판만 받는 가시밭길의 힘들기만 한 길이라면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사제의 길을 가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번뿐인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못하게 말릴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능력마저 포기해 버린 힘없고 약한 사제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약하고 힘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재현시켜야 하는 사제의 삶은 신앙의 신비이며 이 세상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들의 기도와 사랑과 보살핌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제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제는 나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수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처럼 또 하나의 선택된 희생 제물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삶을 살아가



는 사제가 없이는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 되는 성사생활은 불가능 합니다. 고백 성사와 성체 성사가 없는 가톨릭은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으며 세례성사 없이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제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나 신이 아니기에 우리들처럼 많은 단점으로 잘못된 일들도 발생하지만 선택받은 사제들의 삶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에 잘한 일도 잘못된 일도 모두 그들을 선택하신 하느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믿음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제들의 잘못을 심판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상처를 받게되는 것은 물론이며 자기자신과 공동체도 어둠의 세력에 의한 불신과 혼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분열과 혼란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당신과 함께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고 호소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해야 할 일에 충실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더욱 좋을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축복과 능력이 사제들과 우리들의 공동체(가정)에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본당(가정)안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제와 공동체(가정)에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의 9절부터 12절까지의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그날에는 우리자신이 속한 본당 공동체(가정)에 뿌려진 나의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의 씨앗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날을 두려워하며 좀더 잘 살아보고자 신앙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까? 사

제와 본당(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더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는 없겠는지요? 사제를 내 가족중의 한사람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의 뜻을 밝히고 계십니다.

“교우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악한 사람들을 불들어 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 하십시오.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 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데살로니카 전서 5장 12절-18절)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그들의 하나뿐인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며 분명하고 확실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에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십시오. 꾸준히 계속 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믿는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10절)

몇년 전 들었던 어떤 신부님의 강론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을 모두 좋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가 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이기에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이 따르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축복받은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제와 가족을 격려하고 보살피며 용기를 주어 공동체(가정)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탓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 중심의 잘못된 정의를 주장하는 메마른 성격의 가정 파탄 자로 비난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주님과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당신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하실 것 인지요..... **M**



우리들의 사제들을 누가 지킬 것인가?

5년 전의 일이었다. 모든 성인의 대 축일 미사도중,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뒤에 앉아 있는 미국 젊은 청년과 악수를 했다. 맑은 눈에 총명한 빛을 풍기는 잘생긴 미국 청년이었다. 미사가 끝난 후 눈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주위가 잠잠해진 것을 보니 신자들이 다 나간 것 같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것은 그 청년이 감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이었다. 문득 생각난 것이 어서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여 예수님께서 저 청년의 마음을 차지하시게 해야지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서둘러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며 나의 뜻을 그 청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못들은 척하면 할수록 더 크게 들리는 소리 없는 목소리에 하는 수 없이 순종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당신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라고요." 그는 이 말에 무척 놀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무안해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와 십자가의 길을 마쳤다. 그리고 다시 주님발치에 한 20분 머물다가 성당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청년은 밖에서 나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놀라는 나에게 다가오며,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나는 여자친구와 약혼할 것이고 결혼해서 자식들도 열명은 낳고

싶은 마음인데요?" 비록 이렇게 말한 요한이었지만, 두 달이 지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그는 다시 그 감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저는 무척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끌어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봉헌했다. 대학원까지 졸업했지만,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오는 6월22일날 사제서품 받는다. 사제가 되면 먼저 파티마에 가서 자신의 사제직을 성모님의 티없으신 성심께 봉헌 하겠다고 말하는 요한 부제는 참으로 겸손하고 거룩하게 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우선 하나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성장하기까지 갖은 요소와 인력을 다 동원하며 가꾸시는 하느님, 그분의 모습은 마치 피땀 흘리며 농사짓는 한 농부의 모습이며, 문밖에서 조용히 노크하며 혹시 열어 주지 않을까 하며 마냥 기다리시는 모습이



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직접 가꾸시며 특별한 은총과 힘을 부어 주시고 예수님 처럼 아니 그분 보다 더 큰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느님의 귀한 결실들, 이들을 보존하기 위해 기도와 희생을 하는 것은 신자들의 의무이며 소명인 듯 싶다. 주님께서도,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마태오 10:42)"라고 하시며 당신 대리자들을 사랑해 주길 호소하셨다. 사제 없이는 귀한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사제 없이는 영혼의 면지를 털지 못하며, 사



제 없는 천주교는 죽은 교회가 아니겠는가!(요조 신부님의 말씀)

세상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 돌아간다. 그러나 이 하느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다. 성모님께서 작은 자의 미소한 희생을 큰사랑으로 감싸서 봉헌 해 주실 때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느님의 약점을 사용하자.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를 주우면서도, 사제와 성소자들을 위해 봉헌하고, 사제들 안에서 보이는 인간적인 부족함들을 지적하기 전에 사랑으로 감싸드리며,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그 미사를 집전하시는 사제나, 고백

성사 주시는 사제를 위해 먼저 묵주 기도를 바쳐 드리는 신자들이 되어 보자. 하느님 자비의 성녀 파우스티나께서는 고백성사 보러 가실 때 자신보다 고해신부님을 위해 갖은 기도와 희생을 드렸고 이렇게 할 때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해신부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심을 종종 체험 하셨다고 하신다.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집안 일임을 깨닫고 교황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를 하면서 더욱 사제들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제들이 주님께 약속한 가난과 청빈과 순명의 허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자신을 태우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냘픈 촛불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꺾어버리면 우리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 드리고, 심지가 촛농에 너무 흥건히 젖어 불이 꺼져 가면 우리의 손으로 촛농을 퍼내어 초주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방안을 환히 비추게 도와 드리자.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니다. 다만 빛이 세상을 비추도록 돕는 도구들일 뿐이다. 우리의 총 사령관이신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자주 사제들을 봉헌하고 마음 다하여 그들의 수호천사 되어드리자. 우리 사제들 사랑하고 감싸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대견해 하시는 하느님을 상상해 보자. **M**

마리아지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이반 드라기체비치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이
반 드라기체비
치입니다. 저는
메주고리에의 6
명의 발현증인
중 한명으로 여
러분을 만나 뵈
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성모님을 처음 뵈는 것은 제가 16살 때였습니다.

저는 장남이기 때문에 해 뜰때부터 해지기 까지 부모님과 함께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밭에서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축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축일은 저에게 유일한 휴일이고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믿음이 강하거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기도를 하면 시계만 쳐다 보고 미사를 가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아주 수줍고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날은 세례자 요한대 축일이었습니다. 미사를 얼른 바친 후 친구들과 함께 축구경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친구집에 가서 농구게임을 보았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저는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다시 그 게임을 보기 위해 가는데 비스카와 다른 발현증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하는 헛소리라니 하였지만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려와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때 저는 구름 위에서 계시는 여인을 보면서 뒤도 안 돌

아 보면서 집으로 달려와 제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었습니다. 열쇠라는 열쇠는 다 가지고 잠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

각들이 스쳐가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은 무엇에 끌렸는지 우리 여섯은 다시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날 역시 성모님께서 나타나셨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라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평화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에 깃들어야 한다. 세상은 이제 완전히 위험 속에 있고 파멸로 이끌려 가고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 분의 아들이신 평화의 왕으로부터 오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그 분의 아드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즉 하느님께로 가는 지름길을 가리켜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평화로 이끄시며 하느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어머니의 메시지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만일 인간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 안에 평화가 있



을 수 없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이 평화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셨고 죄악에 허덕이는 세상을 일으켜 평화와 회심 그리고 강한 믿음으로 이끄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중,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늘 너희와 함께 한다. 그리고 평화가 세상에 군림하도록 너희를 돕고 싶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너희들과 함께 만이 이 평화를 이룩할 수가 있단다. 그러하니 너희는 언제나 선함을 택하고 악과 죄를 배척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희망의 어머니시며 빛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지칠 대로 지친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처해 있는 험악한 상태에서 빠져 나오는 길을 가르쳐주시며 보여주십니다. 그 분은 우리의 어머니시며 우리의 스승이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며 희망과 빛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 표현 할 수는 없지만, 그 분은 우리 각자를 당신의 성심 안에 감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메시지들은 모두가 온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로서 어느 나라 - 미국, 크로이시아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나라를 택하셔서 전하

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머니의 메시지 서두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가 죄를 씻고 하느님 품안으로 돌아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며 성모님을 통하여 지난 20년간 주신 평화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가족과의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열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험악한 상태에 처한 세상에서는 가정의 위기, 청소년들의 위기,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위기에 성모님과 함께 기도로 대적하여야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사람들 안에 믿음을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기에 사람들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성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을 네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 놓아라 그리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회심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늘 수행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이 회심과 정화는 우리가 죽는 날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심으로 거룩하고 좀더 완벽한 삶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성모님은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여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미사로 이끄시고 미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나러 오는 것과 미사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할 경우, 나는 미사에 참여하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고백 성사 보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흠승하며 자주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방문하라고 초대하십니다. 또 미사에 가능한 자주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가족 특히 자녀들과 함께 성서 읽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성서를 보이는 곳에 모셔놓아라.”

그러나 한 곳에 모셔놓고 먼지만 쌓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고 살아감으로써 성서가 영적인 양식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수 천번을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라고 외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칠 줄 모

르시고 기도로 초대하십니다. 어머니는 많은 인내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가슴으로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만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우리 전 존재를 다 바쳐 기도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일치하여 그분과 대화하면서 좀더 완벽한 기쁨과 힘을 얻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이나 성모님께서는 어떤 기도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면 다 귀하게 받아주심을 확신합니다. 기도는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의 향기를 계속 풍기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중심이며 믿음의 중심이고 영혼의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학교이고 모든 이가 입학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부터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족 안에서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학교는 주말이나 휴강이 없습니다. 매일 등교하여야 하고 매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비로서 우리는 이 학교로부터 졸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어떤 식으로 성모님께서 기도를 잘하도록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만일 기도를 잘하고자 한다면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자 하는 결심은 개인적인 것입니





다. 그러나 기도를 잘 하고자 하는 것은 은총으로서 많은 기도를 바칠 때 주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냅니다. 하느님과 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과의 시간을 보냅니까?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내 삶 어느 부분이 하느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인가를 반성하시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읍시다. 그리고 기도를 가정으로 끌어들이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화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세상은 영적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참으로 작은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는 백배로 채워주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잠에서 깨워 믿음으로 무장 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도로부터 멀어졌기에 영혼이 죽은 송장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혼수상태(코마)에 빠져있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어쩌다 한번씩 깨어나는 것이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때문에 어머니는 오셨으며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안고 직접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성모님께서 제게 발현하셨습니다. 잠깐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현 전 우리는 늘 묵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6:40분에 제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었을 때, 성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분이 오실 때는 늘 빛이 먼저 오고 이 빛이 사라진 후 나타나십니다. 오늘 성모님의 모습은 굉장히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 모두를 맞이하시며,

“찬미예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시며 팔을 내미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모두와 가족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지향들 특히 병자들을 봉헌하였습니다. 그 후 성모님과 저는 주의 기도와 영광송을 바쳤습니다. 성모님과 저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오늘 주신 메시지는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들이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면서 성호를 그으신 후 떠나셨습니다.

저는 성모님 뵈는 것이 여러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저는 정말 성모님과의 대화가 여러분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쉽고 어머니를 만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어머니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회색 드레스에 하얀 망토를 두르셨고 파란 눈과 핑크빛 볼에 검은 머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늘 구름 위에서 서 계시고 12개의 별들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세상에 참 평화를 세우는 성모님의 협조자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는 - 평화, 기도, 회심, 그리고 강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믿음을 새로이 다짐하면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결심합니다. **M**



우리의 빛이며 협조자이신 성모님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이 5월을 맞이하여 모든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깨어나기를 성모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한송이의 꽃과도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모든 죄악은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 웃음을 잃게 하고 어두움과 부정적인 생각, 또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며 인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랑을 파괴하며 우리 마음 안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평화로움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행복 할 수 없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사랑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을 창조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할 때 사랑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추구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만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 주시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길을 보여주시며 늘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의 빛이며 협조자이심을 오늘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달의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 "모든 것을 보시고 베푸시는 하느님께로 너희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은 루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되새기게 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메주고리에 본당의 류보신부의
4월 메시지 해설

편집실 소식

새로와 졌어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동분서주 하며 만들어지던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신적으로 지도 해주시는 김한기 신부님과 P신부님, S신부님, 그리고 서울 영인문화사의 이용근 마르꼬 형제님의 도우심으로 15호부터는 서울에서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해외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전해질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더욱더 기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 드리며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 영광과 찬미드립니다.



히브리서, 디모테오서, 디도서를 읽기 위한 길잡이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아무도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구구한 이론이 있는데, 이 서간에는 제관, 성전, 제사를 유대인들의 의식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씌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서간 이름을 「히브리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어쩌면 편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편지라면 보통 인사로 시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저자의 핵심사상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일에 곧바로 뛰어듭니다. 마지막인 13장에 가서야 비로써 편지 같은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흔들림 속에 있을 때, 저자는 구약의 옛 계약과 신약의 새 계약인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가 바로 구약의 대사제이며, 구약의 어떤 희생 제사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는 희생제사를 바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대사제를 모시고 있으므로 흔들려서는 안되며 한결같이 그 분께

충실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그 분이 구약시대의 사제들처럼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 분은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었을 것이며 그 분이 하느님 뿐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의 위엄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차 어쩔줄 몰라하며 무서움에 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느님을 결합시키는 우리의 사제이시며 하느님이시면서 우리 중의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분은 우리가 견디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테오 1,2서

이 서간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목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18세기 경부터 '사목서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디모테오는 바오로 사도의 제자이며 협력자였습니다. 디모테오1서에서 바오로는 디모테오에게 안수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기능을 용감하게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고 진리를 선포하고 감싸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며 경신례를 조직하고 목자가 되어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지도하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파견되신 것은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였음을 되새겨 헌신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닌 섬기는 직책,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연대성을 가져야 함



니다.

디모테오 Ⅱ서에서는 Ⅰ서와 같은 주제이지만 관심사는 공동체에서 개인관계로 넘어갑니다. 시기적으로는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을 당시 67년경으로 이때는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설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법정에서도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바오로는 순교를 준비하고 있던 때로 봅니다.

바오로는 버림받았다는 고독감과 몰이해와 고문과 곧 집행될 사형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테오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했고 디모테오의 사명을 견고하게 해 주고자 했습니다.

이 편지의 중심주제는 '마지막 날들'을 깊이 살피는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으면서 바오로 자신과 함께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온전히 선포하라고 권고합니다.

디 도서

이 편지는 아마 64~65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며 디모테오서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고, 공동체들이 세워졌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옛 유대교적 습관과 전통이 공동체의 일치와 윤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디도에게 교회의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레나 율법 앞에서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서읽기 표

- 1) 매번 읽기전에 "주의기도" "성모송"으로 시작 기도를 바치며 마칠때는 "영광송"을 바친다.
- 2) 매일 꾸준히 읽는다(읽은 날은 Check를 한다).
- 3)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읽는다.
- 4) 그날의 말씀에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으면 하루의 "화살기도"를 만들어 바친다. **M**

날짜	요일	장 절	Check
6/1	토	히브리서 1장	
6/2	일		2장
6/3	월		3장
6/4	화		4장
6/5	수		5장
6/6	목		6장
6/7	금		7장
6/8	토		8장
6/9	일		9장
6/10	월		10장
6/11	화		11장
6/12	수		12장
6/13	목		13장
6/14	금	디모테오1서 1장	
6/15	토		2장
6/16	일		3장
6/17	월		4장
6/18	화		5,1-16
6/19	수		5,17-25
6/20	목		6장
6/21	금	디모테오2서 1장	
6/22	토		2,1-13
6/23	일		2,14-26
6/24	월		3,1-9
6/25	화		3,10-17
6/26	수		4,1-8
6/27	목		4,9-22
6/28	금	디도서 1,1-16	
6/29	토		2,1-15
6/30	일		3,1-15

*읽기표에 따라 쓰기 성서를 해도 좋습니다.

3,4월 후원해 주신 분들

김한기 신부	박순예 유스티나
박명근 신부	임호분 세실리아
박 마리아	윤갑신 마리아
문 루시아	구옥분 안나
김 안나	조명숙 로사리아
김철석 부부	윤멜라니오
김상배 부부	신동배
이정선 제노베파	장누칼다
김행자 헤레나	손데레사
이계숙 안젤라	최 안나
이정옥 세레나	박명순
김숙경 카타리나	김순경 부부
허정덕 세레나	이 엘리자벳
안정애 카타리나	이진영 부부
조정자 바드리시아	장카타리나
이금용 요셉피나	김금자 안젤라
오예진 루시아	박정자

GA 성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성

**한국에서 메주고리에와
성지 순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여행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계로 여행사 : 02-3482-5775
 명보 여행사 : 02-737-2850
 성모 여행사 : 053-639-0211
 진지 여행사 : 02-738-0747
 마리아 여행사 : 02-723-5425
 금수강산 여행사 : 02-745-2222

어머니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여,
저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소서.

그토록 아름답고, 순수하며,

그토록 티 없으신,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찬

그 마음을 저에게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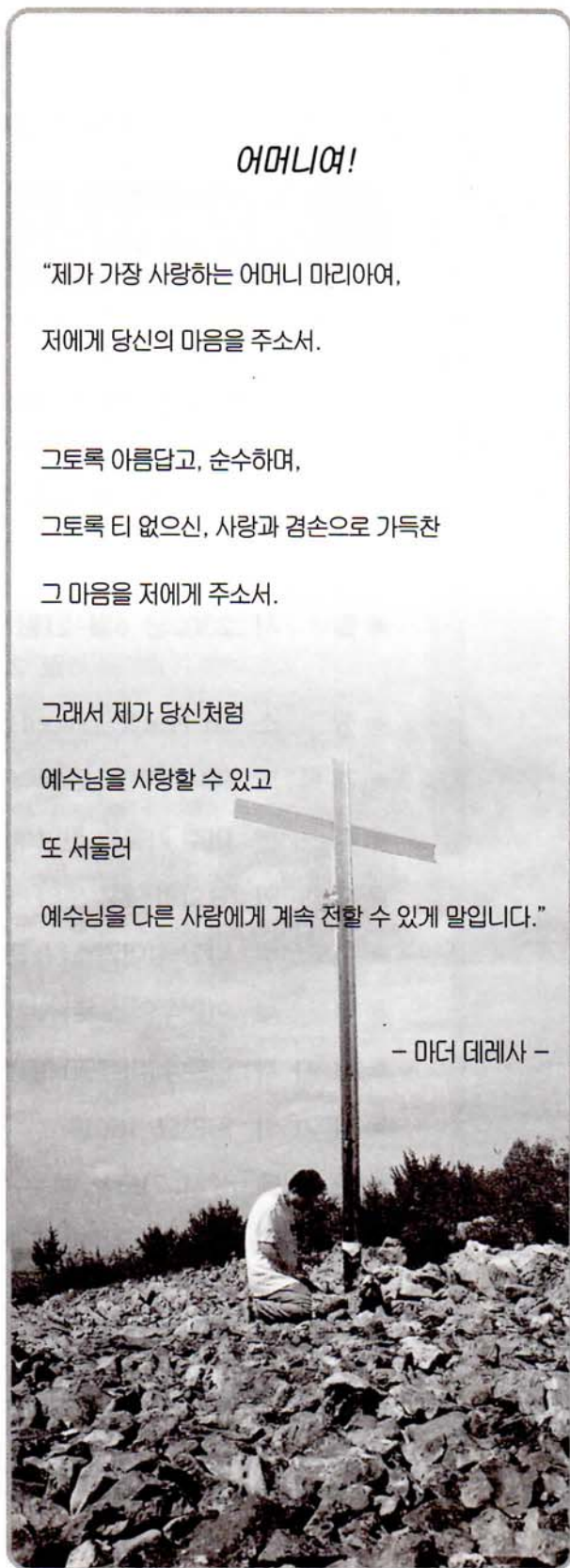
그래서 제가 당신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둘러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할 수 있게 말입니다.”

- 마더 데레사 -



북미주 레지오 마리아 교육협의회

성모신심 쇄신 세미나

성서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올바른 성모신심을 가짐으로써
중성한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성모신심 쇄신 세미나에
사랑하는 교형 자매님들을 초청합니다.

- 일 시 : 2002년 6월 21일 금요일 오후 5:00
~ 6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2박 3일)
- 장 소 : Sn. Pius X Spritual Life Center, Elackwood, New Jersey
- 주 최 : 북미주 레지오 마리아 교육협의회
- 주 관 : 미주 가톨릭 신앙쇄신 세미나 봉사팀
- 후 원 : 평화의 모후 센타 USA
- 지도신부 : 박창득(어거스틴) 몬시뇰, 이종효(클레멘스) 신부
- 부 제 : 이관우(바오로) 부제, 이창제(요셉) 부제
- 봉 사 자 : 임문수(마르코) 형제, 안희숙(엘리사벳) 자매
- 참 가 비 : 일인당 150불
- 준 비 물 : 성서, 기도서, 묵주, 미사봉헌 예물
- 신청방법 : 신청서와 참가비를 (Payable of Ceacor Paul-Lee) 동봉하여
우송하여 주십시오.
- 신청 및 문의 : 이관우 부제(215) 646-3390
301 Tennis Avenue, Ambler, PA 19002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서천원 프란치스코
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11월 9일 아침에 예정되었던 십자가산 등정을 날씨 관계로 취소해야할 것 같다는 인솔자의 전달을 들었다. 기다렸던 온 메주고리에 순례일정인데 비가 내리는 날씨 때문에 못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길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함께간 일행중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미 낮에부터 지도를 보고 목적지인 십자가산의 방향을 알아놓고 함께 할 동행을 찾고 있었던 두 자매님의 열성 때문에 캄캄한 한밤중에 십자가산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다.

방을 함께쓰던 이구성 형제님이 어느 자매님께서 십자가산을 함께 오르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어 오셨을 때 나는 혼자 조용히 성당 근처에서 기도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두툼하게 외투를 입고 출발하기 전이었기에 함께 따라 나섰다.

숙소 앞에서 자매님 두분과 만나기로한 밤 9시 30분에 비밀접선이라도 하듯이 조심스럽게 만나서 출발하였다. 혹시 누가 보지않나 하며 계속 뒤를 돌아 보면서 말이다.(인솔자의 허락없이 개인행동을 하는 미안함 때문에....)

캄캄한 밤에 전등불만 갖고서 길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다. 거의 다 왔을 무렵 지나가는 차를 세워 확인을 하고 십자가산 도착했을 땐 어느 젊은 두 남

녀가 서 있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여기가 입구라며 알려 주었다. 그 당시엔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그 늦은 시각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내 해 준 것을 시작으로 우연한(?) 사건들이 자꾸 생겼다.

칠흙 같이 캄캄한 밤에 각자가 소지한 손전등만 가지고 여기저기 길이라 생각되는 곳을 더듬거리며 찾아 나섰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길을 잃을까봐 조심스러워 하며 불빛만 의지하며 십자가산에 있는 십사처를 길안내 삼아 일처, 이처, 삼처까지 하면서 올라왔을 때였다. 갑자기 검정개 한 마리가 우리곁에 와서 있지 않은가? 늦은 이 시간 이산속에 왜개가? 그런데 아무도 놀라지 않았던 것 또한 신기했다. 각처마다 묵상을 하고 주모경을 바친후 그 다음 처를 찾아 올라갔다. 검정개는 항상 우리보다 한발 앞서 가면서 찌찌하는 이상한 소리로 우리를 부르면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고맙았다.

육처, 칠처를 지나도록 계속 그렇게 앞서가며 신호를 보내주는 검정개가 너무 기특하고 고맙기도 하여 엔젤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며 그 뒤를 쫓아 십자가산 정상에 향해 올라갔다. 처음에는 그저 길을 잃은 개 이겠지, 가다가 어느 순간엔 없어 지겠지 하면서 중간에 비스킷도 줘보고 물도 줘 봤지만 전혀 먹지를 않았다. 마침내 밤 11시 15분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에 있는 십자가산에서 눈부시도록 환한 빛이 강렬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체험이었다. 잠시후 흑시 전기가 연결되었나 하면서 둘러 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한 자매님은 진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고

도 했다. 나는 그런 체험은 없었지만 한밤중이었는데도 높은 산의 정상에서 그것도 비가 내린후인 11월에 한밤중의 바람치고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은화하며 포근한 느낌이어서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느낌이 들었다. 기도를 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되었다. 처음 엔젤을 만났을 때는 그저 이상하다,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건 어두운밤에 산을 올라가는 우리를 위해 분명히 주님께서 안내자로 보내 주신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뜻하지 않게 받은 은총을 생각하니 보살펴 주시는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고나 할까?

그동안 주위에서 여러 가지 신비스런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기해 하며 나도 그런 체험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체험이 나에게도 일어날줄이야. 우리는 밤 12시쯤 산에서 내려갈 때 성당 뒤쪽에 있는 청동으로 만든 예수 부활상이(성당 뒷편 포도밭 옆에 있는 청동상인데 언제부터인가 오른쪽 무릎에서 물도 기름도 아닌 소량의 액체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음) 있는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동상 무릎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 가지고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각자가 개인기도를 하기 위하여 서로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

오랜시간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 엔젤은 한 자매님 옆에서 우리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있었다. 우리는 기도가 끝난 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누가 이런 사실을 믿어줄까를 이야기를 하면서 산에서 엔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음날 사진현상을 했는데 세장의 사진 속에서 우리는 전혀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의 형태를 한 빛의 모양이 나타났다. 산에 오를 때 등에 메는 가방 속에 조그만 담요를 넣어 가지고 갔었는데 산에서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한후 따로 챙긴다며 가방위에 대충 걸쳐놓고 내려올 때 깜박 잊어버린 것을 늦게야 알았다. 일행에게 이야기를 한 후 담요를 찾으러 산위로 다시 올라갔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상 정면 바닥에 삼각형 모양으로 단정하게 개여진채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일행들 때문에 바빠 내려왔지만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일행 밖에 아무도 없었던 한밤중에 누가 그 담요를 그곳에 갖다가 났을까?...

그때부터 산을 내려갈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살짝 혼자만 신발을 벗고 엉금엉금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내가 자꾸 뒤에 처지니까 일행이 눈치를 챘다. 우리 일행은 모두 맨발로 내려가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려오던 중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젊은 백인 남녀 두 사람이 올라오면서 우리와 마주쳤다. 우리 맨발로 내려간다고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들은 그저 우리 모습만 보는 듯 하더니 아무말도 없이 그냥 오르지 않는가? 그 흔한 인사 한마디 없이 말이다. 그들과 헤어진 후 우리는 약간 정신이 나간 듯 했다. 아니 이 밤중에 불도 없이 산을 올라가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손전등중 하나를 주지 못한 마음을 후회하기도 하며 우리도 손전등 없이 가보자고 불을 다 꺼보기도



했지만 앞이 깜깜하여 도저히 한발자욱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불가능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그들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보통은 모르는 사이라도 만나면 간단한 인사 한마디 정도는 서로 할텐데 그들이 한마디는 한마디도 듣지 못한 것, 그 밤중에 그것도 산속에서 낯선 사람을 갑자기 만났는데도 일행중 누구 한사람 놀라지 않았다는 것,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참동안 의아한 생각을 버리지 못한채 내려왔다. 엔젤은 계속 우리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먼저 내려가고 있었고 안보일만 하면 다시 모습을 나타내곤 했다. 뽀족한 산 바위들이 촉촉한 습기로 무척 미끄러워 내려오는 길은 오를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들었지만 짧은 순례중에 우연하게,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일들을 체험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흥분 속에 있었다. 등에는 온통 땀이 흘렀고 발에 힘을 주고 내려 오느라 무척 지쳐있었다. 산 입구에 다다르자마자 웬 택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앞에서 멈추지 않겠는가? 그때 일행중 한사람이 택시를 타고가자고 해서 모두 택시에 올랐다. 그런데 그 순간 한번도 잊지않던 엔젤이 마구 짚어대기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순간의 시작이었다. 운전기사 옆 창문에 와서 두발을 올려가며 마구 발길질을 하며 짚어댔다. 순간 택시에 탔던 우리 일행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그동안 함께 했던 엔젤을 배신한거야, 엔젤아 미안하다 하며 진심으로 안쓰러워 했다. 결사적으로 말리는 엔젤을 간신히

히 따돌린 운전기사는 빠른 속력으로 우리를 숙소 근처까지 내려다주고 갔다. 차에서 내린 후 우리 엔젤을 생각하며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모경으로 대신했다. 그러는 순간 갑자기 엔젤이 다시 나타났다. 놀라운 일이었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엔젤이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다시 나타났을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다. 우리 엔젤을 쓰다듬어 주며 고맙다고 인사하고 우리가 엔젤보다 먼저 방에 들어가면 분명 마구 짚어댈 것 같아서 잠든 사람들이 깰까바 아무도 숙소로 향하질 못하고 있는데 엔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숙소 앞을 지나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엔젤은 우리 일행이 처음에 가기로한 청동 부활십자상에 가지않고 그냥 택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짚어댄 것은 아닌지?... 메주고리에에서 지내는 마지막 밤이되는 다음날 일행들은 밤 1시까지 청동부활상에서 물을 받아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찍은 한 자매님의 사진속에 신비한 빛줄기의 사진들이 나타나 있었다. 이 또한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빛들이 어떻게 사진 속에 나와 있을까? 우리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빛들이 늘 우리 생활 속에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 주님의 현존하심을 알게 해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께 더욱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은 찬미 영광 받으소서. 이번 순례를 다녀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형님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M**

가슴 깊이 담긴 평화

· 메주고리에 제13차 순례자

메주고리에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손만 뻗으면 하얀 구름을 가득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는 몇 번 왔지만 늘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다.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여 몸과 영혼이 폭 쉬다 가는 곳이라면, 천국과 세상이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곳이라면 조금은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순례도 참으로 평화로움 그 자체였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웃고 이해하며 서로 받아 주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슴속의 상처들이 두 손 모아 간절하게 드린 기도로 치유되어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어머니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환하게 밝아져 가는 얼굴들을 보고 있노라면 하느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미소를 보시고 참 좋았다고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깊이 체험한 얼굴들은 이제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가득해 보였다.

지도신부님으로 함께 동행하신 박명근 신부님께서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순간 순간에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주의해야할 점을 말씀하시며 잘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인정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어하며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하는 마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잠재해 있

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내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다. 더구나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 하였는데....'라는 단단한 매듭은 이웃과의 관계에 풀리지 않는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은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게 하였으며 그 동안 있었던 어려움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여도 교회와 사제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적인 주제의 대화는 서로에게 불신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에 가능하면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와 사제에 대해 좋지않은 이미지를 갖게되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소를 거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시며 부모님들이 교회와 사제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사명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 봉헌하며 기도하는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들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례를 마쳤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성모님께서 20여년 동안 끊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며 살아보자고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 보았다.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나의 삶에서 잘못 된 것들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앞으로는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 잘

English Edition of Queen of Peace



Easter Message
of the Holy Father

"Praying with the Heart"
By Fr. Jozo

Testimony and
Conversion story



Pray! Pray! Pray

Monthly Message from Medjugorje

April 25, 2002

"Dear children! Rejoice with me in this time of spring when all nature is awakening and your hearts long for change. Open yourselves, little children, and pray. Do not forget that I am with you and I desire to take you all to my Son that He may give you the gift of sincere love towards God and everything that is from Him. Open yourselves to prayer and seek a conversion of your hearts from God; everything else He sees and provides.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URBI ET ORBI (to the city and to the world)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Easter Sunday, 31 March 2002

"Venit Jesus... et dixit eis: 'Pax vobis!'"

"Jesus came... and said to them, "Peace be with you"
(Jn 20:19).

Christ's blessing resounds today,
on this most solemn day: Peace be with you!
Peace to all the men and women of the world!
Christ is truly risen,
and brings peace to all!
This is the "good news" of Easter.
Today is the new day, "made by the Lord" (Ps 117:24),
which, in the glorious body of the Risen One,
restores to the world, wounded by sin,
its original beauty,
radiant with new splendor.
"Death with life contended;
combat strangely ended!"
After the terrible battle Christ returns victorious
and advances upon the stage of history
announcing the Good News: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Jn 11:25),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n 9:5).
His message can be summarized in one word:
"Pax vobis - Peace be with you!"
His peace is the fruit of the victory
over sin and death
which he gained at a high price.

(excerpt from Holy Father's 2002 Easter Message.)



MESSAGE OF THE HOLY FATHER

(continuation from the last issue)

3.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For those who first heard Jesus, as for us, the symbol of light evokes the desire for truth and the thirst for the fullness of knowledge which are imprinted deep within every human being.

When the light fades or vanishes altogether, we no longer see things as they really are. In the heart of the night we can feel frightened and insecure, and we impatiently await the coming of the light of dawn. Dear young people, it is up to you to be the watchmen of the morning (cf. Is 21:11-12) who announce the coming of the sun who is the Risen Christ!

The light which Jesus speaks of in the Gospel is the light of faith, God's free gift, which enlightens the heart and clarifies the mind. "It is the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who has shone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on the face of Christ" (2 Cor 4:6). That is why the words of Jesus explaining his identity and his mission are so important: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ot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n 8:12).

Our personal encounter with Christ bathes life in new light, sets us on the right path, and sends us out to be his witnesses. This new way of looking at the world and at people, which comes to us from him, leads us more deeply into the mystery of faith, which is not just a collection of theoretical assertions to be accepted and approved by the mind, but an experience to be had, a truth to be lived, the salt and light of all reality (cf. *Veritatis Splendor*, 88).

In this secularized age, when many of our contemporaries think and act as if God did not exist or are attracted to irrational forms of religion, it is you, dear young people, who must show that faith is a personal decision which involves your whole life. Let the Gospel be the measure and guide of life's decisions and plans! Then you will be missionaries in all that you do and say, and wherever you work and live you will be signs of God's love, credible witnesses to the loving presence of Jesus Christ. Never forget: "No one lights a lamp and then puts it under a bushel" (Mt 5:15)!

Just as salt gives flavor to food and light illumines the darkness, so too holiness gives full meaning to life and makes it reflect God's glory. How many saints, especially young saints, can we count in the Church's history! In their love for God their heroic virtues shone before the world, and so they became models of life which the Church has held up for imitation by all. Let us remember only a few of them: Agnes of Rome, Andrew of Ph' Yín, Pedro Calungsod, Josephine Bakhita, ThÈrÈse of Lisieux, Pier Giorgio Frassati, Marcel Callo, Francisco CastellÚ Aleu or again Kateri Tekakwitha, the young Iroquois called "the Lily of the Mohawks". Through the intercession of this great host of witnesses, may God make you too, dear young people, the saints of the third millennium!

TO THE YOUTH OF THE WORLD

4. Dear friends, it is time to get ready for the Seventeenth World Youth Day. I invite you to read and study the Apostolic Letter *Novo Millennio Ineunte*, which I wrot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accompany all Christians on this new stage of the life of the Church and humanity: "A new century, a new millennium are opening in the light of Christ. But not everyone can see this light. Ours is the wonderful and demanding task of becoming its 'reflection'" (No. 54).

Yes, now is the time for mission! In your Dioceses and parishes, in your movements, associations and communities, Christ is calling you. The Church welcomes you and wishes to be your home and your school of communion and prayer. Study the Word of God and let it enlighten your minds and hearts. Draw strength from the sacramental grace of Reconciliation and the Eucharist. Visit the Lord in that "heart to heart" contact that is Eucharistic Adoration. Day after day, you will receive new energy to help you to bring comfort to the suffering and peace to the world. Many people are wounded by life: they are excluded from economic progress, and are without a home, a family, a job; there are people who are lost in a world of false illusions, or have abandoned all hope. By contemplating the light radiant on the face of the Risen Christ, you will learn to live as "children of the light and children of the day" (1 Th 5:5), and in this way you will show that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Eph 5:9).

5. Dear young friends, Toronto is waiting for all of you who can make it! In the heart of a multi-cultural and multi-faith city, we shall speak of Christ as the one Savior and proclaim the universal salvation of which the Church is the sacrament. In response to the pressing invitation of the Lord who ardently desires "that all may be one" (Jn 17:11), we shall pray for full communion among Christians in truth and charity.

Come, and make the great avenues of Toronto resound with the joyful tidings that Christ loves every person and brings to fulfillment every trace of goodness, beauty and truth found in the city of man. Come, and tell the world of the happiness you have found in meeting Jesus Christ, of your desire to know him better, of how you are committed to proclaiming the Gospel of salvation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young people of Canada, together with their Bishops and the civil authorities, are already preparing to welcome you with great warmth and hospitality. For this I thank them all from my heart. May this first World Youth Day of the new millennium bring to everyone a message of faith, hope and love! My blessing goes with you. And to Mary Mother of the Church I entrust each one of you, your vocation and your mission.



From Castel Gandolfo, 25 July 2001

PRAYING WITH THE HEART

by Fr. Jozo Zovko, O.F.M.



In the first days of the apparitions, we really competed with each other, seeing who could pray more rosaries each day. That was unhealthy competition. Although Our Lady was exhorting us to pray not that way, but with our hearts, we did not understand what it meant to pray with the heart. That night she said to us, "This evening, before you start praying, you should all forgive one another." We thought, "That's something simple, we do that in every Holy Mass!" But by no means was it easy; it was quite an effort. It meant that everyone who had built up hostilities within his heart had to give them to God immediately with love and joy. I explained what Our Lady's request meant and asked all the faithful if they understood. Everyone said yes, but no one did anything. We felt as if we were in a desert, and we were even a little afraid. Moreover, Our Lady would not allow us to pray until we had personally reconciled with each other - until we had forgiven each other from our hearts. A silence came over us; it seemed to last forever. We suffered a desert-like anguish, and it grew later and later.

Everyone felt very depressed. A fight was raging within us. Finally I suggested, "Let's pray the rosary, that we may become able to forgive." So we began praying what we call "the Psalter," all three groups of the mysteries of the rosary. After about half an hour, a voice announced in the church, "Lord, I have forgiven. Please forgive me!" Everyone began



crying and sobbing loudly.

This prayer touched our hearts, and floodgates of tears were opened. We all had the desire to say, "We have forgiven. Please forgive us, too!" And everyone looked for a hand, any hand, to hold. With relieved hearts, we continued our prayer. After the prayer there was a true celebration of reconciliation throughout the whole village.

The morning that followed will go down in the history of Medjugorje. Overnight the people had torn down all the walls in their hearts, walls which had been separating them from one another. The next morning, everywhere in the village, people went to houses in which they had never set foot before because of one incident or another; many had even stopped greeting one another. Farmers can be petty, too. Hate and estrangement often had developed. But now, in their neighbor, they recognized their brother. In their neighbor they recognized Jesus. It occurred to them sadly why, for such a long time before, they had been unable to have such joy and beauty. And so I no longer have to ask anymore, "Do you want to forgive? Do you believe in God the Father?" We now carry out our baptismal promises day by day, everyone making an effort, even if only mentally: "I reject Satan... I believe in God..."

(Fr. Jozo continues)

It was then that people saw the Croatian word "**MIR**", meaning "**PEACE**", in capital letters in the sky. I, too, witnessed this event. The letters moved as if animated, streaming towards us like a car's headlights. It felt like we were experiencing the end of the world. I cannot imagine anyone ever forgetting such a thing - not the letters, but the interior experience, I mean. It is engraved within our hearts, into our lives, and into our entire being, the meaning of "Medjugorje" - engraved within the new man, within children of God who love and forgive.

Personal Testimony

My name is Nicolo Pacini; I live in Ponte a Cappiano, hamlet of Rucecchio, province of Florence. I was born on November 13, 1977. I have just turned 13. I suffered from grave muscular dystrophy which should quickly lead me to death. It is a very rare illness. One of my hands always remained closed, and I could not walk. It began four years ago with a twisted foot then, in May of that same year, 1986, I got to the point of not being able to walk anymore. After that, it affected my other foot, then my hand. The other hand was also clenched.

The other week [November 28], a lady came to my house and spoke to me about Medjugorje. She had not shown me a picture of the statue of the Blessed Virgin (before which we are standing), and yet I saw it in a dream, and white, only slightly different. I also saw the statue in the church of Fr. Jozo. She seemed to be saying: Come, come! She said nothing else. I awakened and decided to come to Medjugorje.

Friday evening, December 7, we arrived here at the church. It was very beautiful; there was no light and there was a great spiritual recollection which one cannot find except in darkness. I listened with great attention to the prayer in progress. In fact, it was the Mass, and then it happened: my right hand, which had been closed since May, opened itself very slowly. I came out of the church with the hand completely free, and I moved it perfectly. I was in my wheelchair, but my hand was cured.

The next day, Saturday, December 8, 1990, about 9 a.m. in the morning, we returned here to the church, and I told my friend who had spoken to me about Medjugorje of the dream which I had had of this statue. We went to see it in the garden, and I took two souvenir pictures. At that moment I felt the desire to get up. I got up and everything was normal. I walked and now I am truly well.

The greatest miracle of all in my life is the fact that I did not believe in God. Then one day after a personal miracle I did believe. My visit to Medjugorje took me beyond believing. Today I no longer merely believe in God, I know God exists. No matter what may happen with the rest of my life, I will never doubt in the existence of God.

Please note that the miracles and the healing of Nicolo which are mentioned here are well documented. There are countless cases of unexplained phenomena in Medjugorje.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 성지

New York JFK 출발

2002년 8월 9일부터 2002년 8월17일까지 (8박9일)

- 8월 9일(금) JFK공항 출발(Northwest)
다음날 Amsterdam을 경유(07:05+1도착, 11:00 출발)
- 10일(토) Split 도착,
메주고리에 도착 .성시간.
- 11일(일) 아침 예절
발현산 순례(환희, 고통의 신비 로사리오 기도)
St. James 성당에서 저녁 예절 및 미사. 성시간
- 12일(월) 아침 예절
십자가산 순례기도(14처 기도)
St. James 성당에서 저녁 예절 및 미사.
- 13일(화) 아침예절
발현목격 증인과의 만남
기도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공동체 방문
St. James 성당의 저녁 예절, 성시간.
- 14일(수) Dubrovnik 으로 출발
1,700년 동안 부패치 않은 Sylvan 성인 성당에서 미사
성곽도시 순례, .출발
- 15일(목) 아침예절
요조 신부님과의 만남,
봉헌과 서약식 및 치유예절
- 16일(금) 메주고리에 출발, 아드리아해안 가에서 휴식,
Split 도착. 옛 성곽 도시, Hotel 투숙. 석식.
- 17일(토) Split공항출발 Amsterdam경유 10:10도착, 19:20출발.
JFK 공항 도착.

지도 신부 : 신 경 남 스테파노 (서울대교구)

한국여권을 보유하신분은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항공사 예약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센터 USA(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3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Fax.(631)367-6194)

E-mail. gregomam@hotmail.com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과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 가실 수 있도록 한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USA

남훈익 그레고리오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 / E-mail. gregorynam@hotmail.com

한국

허혜경 안젤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288번지 동화APT, 101동 2008호

Tel : 031-878-7362 / HP 017-785-3535 / E-mail. hhk2123@hanmail.net